

자국산 찰보리 생산 확대에 주력

오사카지사

찰보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 현재 일본에서는 ‘찰보리 붐’이 한창이다. TV, 잡지 등을 통해 찰보리의 건강, 다이어트 효과가 알려지면서 2016년부터 찰보리 관련 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가정용 시장에서 찰보리의 매출은 총 46억 엔(약 452억 원)으로 일본 잡곡시장의 7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다.
- 가정용 찰보리 시장의 성장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건강기능을 표기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를 활용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찰보리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다는 점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이 된 찰보리의 위상

- 찰보리는 보리쌀의 신종종으로 찹쌀처럼 끈기가 있어서 보리보다 훨씬 먹기에 편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식이섬유를 다량으로 함유한 슈퍼푸드로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일본 건강영양 식품협회에 따르면 찰보리에는 수용성식물섬유 β-구르칸이 들어있는데 이는 당질흡수의 억제효과가 있으며 포만감 유지에도 좋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지 않으면서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도 있다.
- 일본기업들은 찰보리와 찰보리 즉석밥 상품에 ‘장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개선’ 등의 기능을 표기할 수 있도록 찰보리와 관련상품을 소비자청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찰보리 관련 상품



찰보리 상품
(기능성표시식품)



찰보리 즉석밥 상품
(기능성표시식품)



찰보리
즉석밥 상품

출처 : 나가쿠라정맥주식회사 홈페이지(www.nagakura-s.com), 오츠카제약(www.otsuka.co.jp),
하마다정맥(www.hamadaseibaku.co.jp)

찰보리 생산 확대를 위한 일본 내 노력

- 찰보리 인기에 따라 실수요 대응을 위해 일본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JA하이랜드는 2017년부터 관내 모든 보리를 메성보리 품종에서 찰성보리 품종(화이트 화이버)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나가노현은 찰보리 재배면적이 165ha로 늘어나게 되어 일본 전국 1위의 찰보리 산지가 되었다.
- 나가노현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산지의 기상조건에 맞는 찰보리 품종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미야기 현은 화이트 화이버를 장려품종으로 정했고, 이시카와 현도 2018년도부터 화이트 화이버 재배를 시작한다. 또한, 이바라기현도 키라리모치 품종을 장려품종으로 정했다.

트렌드를 고려한 찰보리 제품 개발 필요

- 일본의 찰보리 시장은 폭발적인 붐의 시기를 지나 다소 안정된 시장형성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일본 내에서는 찰보리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일본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만큼 찰보리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일본에 유통되는 찰보리의 약 98%가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일본의 찰보리 수입량은 15,000톤 수준이었으나, 자체 생산량은 약 370톤에 불과했다.
- 최근 1년 사이에 찰보리 소비규모가 2배로 급증하였으나, 그 수요를 국내 생산량으로 충당하지 못하여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산에 의지하고 있다. 찰보리의 품종개발과 생산량 증가로 일본시장의 문을 두드려 볼 만한 시점이다.

출처 : 「食卓に定着、実需「国産もっと」もち麦有望」(일본농업신문, 2018/4/23)

「日本雑穀協会、「日本雑穀アワード」授賞式3社が初の金賞」(일본식량신문, 2018/3/19)